

“박근혜 탄핵 한국 ‘제도적 부패’ 보여준 것”

뉴욕타임스 분석 기사

“박 대통령 불명에 퇴진할 듯”

특검 수사 독립성 강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제도적 부패’(systemic corruption)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제도적 부패’는 부패가 보편화하다 못해 제도화된 것을 일컫는 개념으로, 한국에 부패가 만연했다는 질책인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8월)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하야 압박을 받는 제이컵 주마 남아공 대통령 등을 예로 들면서 많은 정부가 부패스캔들 때문에 붕괴하는 현상의 배경

으로 ‘제도적 부패’를 들었다.

제도적 부패는 부패가 많고 심각해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시스템의 일부가 되며, 더 강해지면 국가 전체 시스템을 감염시켜 정직한 사람조차 부패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

보스턴대 경제학 교수인 레이먼드 피스먼은 “최근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부패 스캔들을 개인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다면 이는 오도하는 것”이라면서 제도적 부패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한 지도자를 옹호한다기보다는 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제도적으로 부패한 나라에서는 부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움직여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부패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뇌물을 주는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균형이 부패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패한 나라에서는 뇌물의 대가가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비용-수익 균형점이 부패 쪽으로 이동한다. 이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이 부정직한 거래를 좋아하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균형이 부패 쪽으로 이동했다면서 2014년 세월호의 안전 점검을 피하려고 공무원과 선박 소유주가 공모한 사실, 올 1월 뇌물 수수 파동에 따른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임, 재벌이 관련된 주요 스캔들 등을 부패의 사례로 나열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독신인 데다가 가족도 없어 부패를 종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전적 이익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겁겁이 쌓인 부패와 싸우는 대신 불명예스럽게 물러나

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도적 부패’이론에 의하면 지금의 혼란스러운 국면은 조심스럽지만 좋은 뉴스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패를 추방하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면 부패의 균형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려면 수사를 맡은 검사와 관련 기관이 충분히 독립된 상태에서 부패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콜로라도대 정치학과 교수인 크리스토프 스테프스는 부패 수사 검사들을 ‘정직의 섬’(islands of honesty)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의 권한이 부패를 뿌리뽑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민사회와 연결된다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마오리족 혈통 47세 미혼모

뉴질랜드 부총리 되다

미혼모 출신의 마오리족 혼혈 소녀가 뉴질랜드의 부총리 자리에 올랐다.

화제의 주인공은 4선 의원의 플라 베넷(47·사진). 최근 사임한 존 키 전 총리 내각에서 기후변화 장관과 사회주택 장관 등을 두루 거친 베넷 의원은 12일 국민당 의원총회에서 자동으로 부총리가 되는 당 부대표에 선출됐다.

베넷 부총리는 타우포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17세 때 딸을 낳아 정부 복지수당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힘으로 키운 것으로 유명하다. 19세 때는 5만6000 달러(약 4600만 원)짜리 집을 장만하기도 했다.

그러나 22세 때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 친구와도 결별하고 일하던 미장원에서 해고당하는 삶의 아픔을 맛보았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그는 그 이듬해인 1992년 오슬랜드로 이사회 요양원에서 접시닻이, 보조 간호사 등으로 일했다. 그러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매시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

정치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무렵이었다. 학교 졸업 후에는 정치인의 꿈을 좇아 머리 매달리 국민당 의원 오슬랜드 북부 지역구 사무실에 직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 2005년 총선에서 국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뤄냈다. 이후 그는 세 차례 오슬랜드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두며 4선의 중진 의원으로 발돋움했다. 새로 출범한 빌 잉글리시 총리 내각에서는 국민당 의원 59명 중 권력 서열 2위인 부총리 자리까지 올랐다. /연합뉴스



카슈미르 무슬림의 기도

12일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의 무슬림들이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의 탄신을 축하하는 ‘이드-아-밀라드’ 축제를 앞두고 광장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러시아 美 대선 개입 사실 아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끝난 미국 대통령선거에 해킹 등의 수단으로 개입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판단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의 ‘폭스뉴스 스탠디’에 출연해 러시아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우스운 얘기”라고 일축한 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측의 “또다른 변명으로 생각되며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선거인단 확보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고위관계자 이메일 해킹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와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트럼프의 승리를 위해 비밀리에 협력한 정황을 CIA에서 확인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해킹 공격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킹이라는 문제는 흥미가 있지만 (누구 소행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러시아인지 중국인지 아니면 어떤가의 침대에 앉아있는 누군가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국무장관 내정자가 아직 발표되지 않는데 대해 트럼프는 현재 내정자로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레스 틸러슨이 “매우,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레스(틸러슨)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수준의 선수”라며 “러시아와도 대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고, 약 20년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 출신인 틸러슨은 엑손모빌 CEO로 활동하며 각종 정상을 포함한 외국 주요 인물들과 폭넓은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공직 경험은 전무하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60 부견의 참모 왕맹

왕맹(王猛, 325~375)은 산동성 창둥현 출신으로 자는 경락이다. 5호 16국의 하나인 전진의 황제 부견을 보좌해 북중국을 통일하는데 기여했다.

그는 어려서 집안이 가난해 삼태기 같은 것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빈천했지만 학문을 좋아했고 특히 병서 읽기를 즐겼다. 하루는 백발의 노인을 만나 시세보다 열배나 비싸게 삼태기를 팔았다. 이 돈으로 병서를 구입해 병법을 공부했다. 노인을 잊을 수 없어 수소문해 화음산에 은거한 노인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부견이 전진을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아 동진의 환온이 북상에 전진을 공격했다. 환온은 패상에 주둔한 채 각지에서 인재를 모집했다. 그는 패상에 도착해 환온과 천하 정세를 논했다. 허름한 옷을 입은채 자기 몸에 있는

의 실력자 본색이 왕맹을 치러고 하자 칼로 반세를 쳐 죽일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보여주었다. 태학을 세워 학문을 권장하고 중앙집권 강화와 농업생산 증진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수리시설과 군정 개선에 전력했다. 낙양을 공격하고 수도 업을 쳐 전연을 멸망시켰다. 선비족 4만호를 장안으로 이주시켰다. 이로 인해 사실상 북중국이 전진의 손안에 들어왔다.

372년 승상이 되었다. 그가 승상이 되자, 백관들은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 일을 했다. 군사, 행정, 외교 등 모든 국정 현안을 통괄했다. 강인하고 명석하며 청렴했다. 선악을 분명히 해 자리만 차지하고 일하지 않는 자들을 과감히 정리했다. 각지의 인재를 두루 발탁했다. 농업과 양잠을 권장해 농업 생산력을 크게 높였다. 부국강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다.

특히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가기강

북중국 통일 기여...청렴·강직 명재상

이를 태연스레 죽이는 기행을 연출했다. 환온이 물었다. “나는 황제의 명을 받아 북벌해 반역자를 토벌해 천하를 평안케 하려한다. 그런데 천하의 호걸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당신은 적의 경내에 깊이 들어왔다. 지금 장안이 목전인데 당신이 패수를 건너 장안으로 쳐들어가지 않으므로 모두들 당신의 속내를 몰라 마중하러 나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환온의 속마음은 장안 정벌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의 대답이 환온의 정국을 찔렀다. 환온은 “강동에 경에 비길만한 인물이 없소”라고 평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명성이 동해왕 부견의 귀에 들어갔다. 참모 여파루의 조언에 따라 그와 만나 정치 대사를 논의했는데 그의 물 흐르는 듯한 말솜씨와 논리에 흠뻑 빠져들었다. “유비가 공명을 만난 것 같다”는 고사가 여기서 탄생했다. 부견은 부생을 죽이고 3대 황제가 되었다. 명칭도 대진천왕으로 바꾸고 본격적인 국가중흥에 나섰다. 그는 중서시랑으로 임명돼 국정개혁의 선봉에 섰다.

왕맹은 부견의 한화 정책을 적극 후원했다. 저축 출신의 부견은 한족과의 융화에 주력했다. 자기 면전에서 저축

을 바로 잡았다. 초대 황제 부견의 처남 강덕이 취중에 여성을 간음하고 재물을 강탈한 일이 발생했다. 그는 강덕을 체포해 목을 잘라 거리에 효수했다. 법을 위반한 귀족 수십여명을 검거해 엄벌에 처했다. 이를 본 부견은 “나는 천하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감탄했다.

국사에 전념한 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부견은 그의 회복을 위해 직접 종묘사직에 기도를 올렸다. 그는 자신이 오래 못 살 것을 예감하고 상소문을 올렸다. “무릇 일을 잘하는 자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잘한 자가 반드시 끝까지 잘하는 것은 아니다. 폐하께서 전대의 성인의 명성을 좇아 따르시면 천하가 매우 행복할 것이다.” 375년 7월 부견은 천히 그의 사저에 가 병세를 살펴보고 뒷일을 부탁했다. 그는 “신이 죽은 뒤에 원컨대 동진을 도모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가 죽자 부견은 태자 부견에게 “하늘은 어찌 우리 왕맹을 이리도 빨리 빼앗아 가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제자랑과 소하에 버금가는 명신으로 부견이 북중국을 통일하는데 일등공신이었다. 그러나 부견은 그의 유언을 무시하고 383년 비수대전을 일으켜 대패해 결국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평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건물] 순천시 풍덕동 중앙초교 인근 주상복합지대 10층 건물
토지 349.4㎡ 건물 2,281.94㎡ 감평가 24억3천 ▶ 최저가 17억
- ★ [무인텔화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평가 37억8천 ▶ 최저가 15억5천
- ★ [건물]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백암사남서측 포장도로점
토지 926㎡ 건물 837.49㎡ 감평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평가 48억8천 ▶ 최저가 21억9천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변 터널식세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평가 12억7천4백 ▶ 최저가 7억1천4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평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0억4천7백
- ★ [공장] 광안구 옥동 평등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평가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담후 협의가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성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공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에 담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토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824평 무인텔 허가 득(19객실)
매매가 8억3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안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안구 공원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풍향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매매 18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 ★ [건물]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현 양식장 5,522평
정양식당 운영 중(연매출 1억5천), 주택(포함) 매매가 17억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